

역사적 상황

-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(Cyrus)가 죽자, 그의 아들 캄비세스(Cambyses: 530-522)가 왕위를 잇게 된다. 캄비세스 제국은 애굽지경까지 이르지만 (526/525), 그가 죽자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난다. 베히스톤 inscription 에 의하면, 다리우스 1 세가 518 년 애굽을 치기까지 1 년 남짓 동안 19 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기록한다. 이 자료에 시리아-팔레스타인의 반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, 학개 2:22 에서 볼 수 있듯 522 년 캄비세스 사후 다리우스 제국이 등장까지의 짧은 기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시기였을 것이다.
- 학개 2:21-22. ²²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엎겠다.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.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엎겠다.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. ²³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. 스알디엘의 아들, 나의 종 스룹바벨아, 그 날이 오면,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. 나 주의 말이다.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,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.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." (표준새번역) =>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고 다리우스(다리우스 I세)는 왕위에 올랐지만(522-486 BCE), 학개와 스가라는 이 불확실한 시기를 배경으로 선포되었다 (학 1:1, 15; 2:1, 10; 속 1:1, 7; 7:1).

A. 팔레스타인에서의 귀환과 성전 개건

- Q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왔나?
 - 에스라 2 장 (느헤미야 7 장): 42,360+ many=>> 엄청 많다.
 - 학개는 이런 대규모 이동을 기록하지 않고, 오히려 촉구하는 듯=> "제발 좀 고향으로 와라"
 - a) Murashu (business) text (ANET 221f) => 여전히 유대인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히 진행.
 - b) Cyrus Cylinder (ANET, 315) 성전건축이 주 목적 (참조. 역대하 36:23; 에스라 1:2-4; 6:3-5).
 - c) 에스라-느헤미야의 숫자는 유토피아적 상황을 설정하고(cf. 출 12:37), 학개서가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 상황에 보다 가깝다.
- 학개와 성전 건축
 - 사람들 생각: 성전 건축이 뭐 그리 급한가? (학 1:2)
 - 고레스 칙령(539 년)과 다리우스 2 년(520) 사이 약 20 년간의 세월이 흘렀다.
 -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70 년간 황폐할 것을 예언(=> 렘 25:11; 29:10). 실제 성전이 515 년, "다리오 왕 육년"에 완성 (에스라 6:15).
 - 학개의 논리: "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,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?" (1:4) => 빈곤한 생활의 이유(1:9)
 - 포로기 이전 히브리서 예언 전통과 상충
 - 아모스, 미가 등은 희생과 제의 예배에 회의적
 - 예레미야도 포로기 예언자들도 성전에 대해 회의적 (이사야 66 장)
 - 스룹바벨(Zerubbabel)의 등장
 - 다윗의 대를 이을 왕족 => 옥쇄(학 2:23)
 - 혹은 유다총독 스룹바벨은 단순히 야훼 하느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종(servant)의 차원=>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(렘 25:9; 27:6; 43:10); 페르시아 왕 고레스 (사 44:28; 45:1).
- 스가라와 환상
 - 8 개 환상
 - 첫째: 여호와와 사자가 땅에 두루 다님 (1:8-17)
 - 둘째: 네 뿔=>유다/이스라엘/예루살렘의 대적 (1:18-21)
 - 셋째: 척량줄 (measuring rod)을 잡은 사람 (2:1-17)
 - 넷째: 대제사장 여호수아 (3:1-10)
 - 다섯째: 순금등대, 두 감람나무 (4:1-14)
 - 여섯째: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(5:1-4)
 - 일곱째: 에바(惡)과 시날땅 (바벨론) (5:5-11)
 - 여덟째: 네 병거와 심판 (6:1-15)

- 구조.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(처음 셋),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세상으로 (나중 셋)
- 대제사장과 가지 (넷째, 다섯 째)
 -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직 수행 (3:7). 천상회의에도 참석(=> 렘 23:18)
 - 가지(branch)의 등장(속 3:8)=> 스룹바벨 (lit., "바벨의 씨"; cf. "거룩한 씨"=> 사 6:13; 11:1; 렘 23:5; 33:15). 다윗 왕권의 연속.
 - 넷째, 다섯째 환상은 각각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과 아울러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말을 기능을 말한다. 구조상 여덟 개 환상의 핵심이다. 곧 환상의 초점은 성전 재건과 아울러 새로운 공동체에서 리더쉽 문제다.

B. 신학적 문제

- 누가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이끌까?
 - 에스겔 40-48 장은 성전체제를 제시 => 제사장 중심
 - 스룹바벨의 역할 (학 2:23; 속 4:6-10) => 다윗 왕조의 부활(?)
 - Q. 면류관들을(κίβητες, στεφάνους; KJV, crowns) 만들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씌우나?
 - 이상적 그림은 사제(여호수아)와 왕(스룹바벨) 사이에 평화가 있다 (6:12-13) => 양당체제
 - 후에 스룹바벨의 소멸과 함께 여호수아 사제직만 남는다.
 - 속 4:9 과 달리 속 6:12 에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, 에스라 5:16 에는 세스바살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.
- 메시아 사상 등장
 - 스룹바벨의 소멸과 함께 양당체제는 실현되지 못했으나, 이런 꿈이 사해 쿰란공동체에 여전히 살아있다. (두 명의 메시아, 아론과 다윗의 후예들)
 -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(왕된)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게 된다.
 - 사제직 비판 (말라기서) => 온전한 유대식 예배(말 1:6-2:9)
 - 묵시문학의 등장. Paul Hanson, *The Dawn of Apocalyptic* (1979). Cf. 말 2:4-6
- 주의 날 (The Day of the Lord)
 - 요엘
 - 본래는 구원과 축제의 날. 이를 아모스가 심판의 날로 이해 (암 5:18-20)
 - 요엘은 유다를 약탈한 이방인을 심판하는 날로 되돌림(1:15; 2:1, 11; 3:14); 말라기는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임하는 날 (4:5)
 - 후에는/"그 후에", 보편적 열망으로=> 평화와 풍요 (요엘 2:28-29 => 행 2:17-18)
 - 종말론(eschatology)
 - 마지막 때란 언제나 이 시대/세대의 마지막이다. 예언이란 본래 역사의 구체적 시점에서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
 - 구체적인 심판에서 우주적 심판으로=> 묵시문학

결론/평가

- ✚ 학개-스가랴-말라기는 형식적으로 토라-예언서-성문서 중 예언서의 끝이지만, 내용면에서는 이스라엘/유다의 건설-파괴-재건이라는 도식에서 마지막 재건의 시작이다.
- ✚ 성서, 특히 예언서의 성격/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로의 적응 능력이다. 역사적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예언과 신탁이 새로운 환경과 질문에 필요, 적합하다고 판명될 때(adaptability), 성서와 전통은 그 의미가 있고 비로소 성서로서의 기능을 다한다. ('해석학적 삼각형' 참조)

생각해 보기

1. 학개-스가랴-말라기 중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? 왜?
2. 학개-스가랴-말라기 중 신약성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? 왜?
3. 성서(전통)와 예언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/적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?